

연중 제2주일

기도서 P. 419 A해

제1독서(이 사)	22, 19-23)
제2독서(로 마)	11, 33-36)
복 음(마 태)	16, 13-20)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구 사무총장 관
 편집인 전주교구 사무총장 관
 인쇄 전주교구 사무총장 관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3201

□ 강론



주고 받아야

전 대 복 신 부

넓다란 성당 앞 잔디밭에서 꼬마들이 놀고 있다. 고무줄 뛰기, 공기받기, 공놀이 등 재미있게 놀고 있고, 나무 밑 벤치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다.

나는 성큼 성큼 그 아이들에게 다가 가서 “에야, 하나만” 하고 큼직한 손바닥을 내밀었다. 여지없이 거절 당했다. 좀 부끄럽지만 옆에 있는 꼬마에게 “네가 하나 줄래” 하고 또 손을 내밀었다. 그 애는 “여기 있어요” 하면서 성큼 내 주었다. 그럴 것을 예상하고 나는 미리 준비한 커다란 사탕봉지 하나를 통채로 그 아이에게 주면서 “내것을 남에게 줄 줄 아는 어린이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말했다.

나의 것이라고 움켜 잡고 남과의 만남이 없다면 가진 것은 더욱 빈약해지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장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주고 받는 나눔이 있을 때, 사회는 밝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단순한 세상 살이도 나눔을 통하여 더욱 풍요롭고 밝고 명랑해진다면 하물며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서로의 만남은 나눔을 전제로 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만나서 무엇을 주고 받았는가 우선 베드로는 예수께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고백 형태의 자기 마음 전부를 드렸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다. 이에 주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선물로 받고 무엇을 베드로에게 주셨는가. 너는 베드로이다.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 즉 죽음을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기상 천외의 말씀이다.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를 맡아서 다스리고, 천상의 권한까지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응답 하셨다. 사랑 하나를 주고 한 봉지를 받은 어린이 처럼, 베드로는 당연한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걸맞지 않은 직책과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다.

그 누군가가 인생은 주고 받는 것 이라고 말했다는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비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복 주시고, 출세 하도록 기회 주시고, 병고에서 낫게 해 주시고, 사후에는 천국까지도 몽땅 주시지요 라고 내 필요만 고집하지 않았는가. 만남은 서로 주고 받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바라기만 하고 드린게 없을진데 우리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없지 않았는가 반성하자.

<고산전주교회 주임신부>



교황청 전교회 사무총장

전주교구 방문



(왼쪽부터 에밀참사·페르난드사무총장·김재덕주교)

지난 19일, 교황청의 복음화 성성(布敎聖省) 실무 책임자인 「전교회」사무총장 페르난드 프랭크 몬시뇰(Right Rev. Msgr. Fernand Frank)은 주한 교황 대사관 참사인 에밀 세릭 몬시뇰과 함께 우리 교구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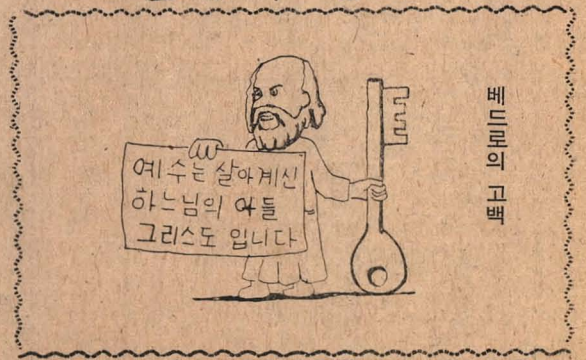
페르난드 몬시뇰은 지난 15일 한국 교회의 전교 상황을 살피기 위해 내한했던 바, 김재덕 주교님의 초청으로 특별히 우리 교구를 찾았다. 한편 동행하게 된 에밀 몬시뇰도 한국에 부임한지 1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전주교구에는 첫 나들이인 셈이다.

페르난드 몬시뇰은 교구청에 도착하여 교구의 현황을 듣고 참사회 사제들과 환담한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점심 후에는 익산군 팔봉면에 자리한 「글라라 수도회」와 이리 「성모의원」, 신축중인 「원명 성당」을 둘러본 후 「성체회 수녀원」에서 저녁식사를 듣고 광주로 떠났다.

□註 복음화 성성(福音化 聖省)…옛 이름으로는 포교 성성으로 불리우는 바, 1622년에 상설된 기구로 “세상에서의 신앙보급”이 그 목적이다. 특별히 선교사 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다.

몬시뇰(Monsignor)…사제이기는 하나 고위 성직자에 든다.

숲 정 이 산책



★LUX MUNDI★

사목점검(司牧點檢)

김 봉 희 신부



글라라 관상수녀회, 한국에 첫발

—전주교구 활동에 자리잡아

어느 새 8월도 막바지, 여름 가고 수확의 가을이 넘겨 다 보인다. 금년따라 유난히 시달림도 컸던 농사, 누구 탓인지 무섭게도 내리치던 옛것엔 행여 저주인가 몸찌도 저어 했는데... 어쩌거나 오늘도 잊지 아니 일용할 양식 베푸시는 주님께 사모 고마움 앞선다. “하느님 참 감사 합니다!”

알알이 영글어 가는 들녘, 현대 우리 신앙의 터전, 사목의 열매들은 또한 어느 정도일까? 「이웃 선교」 전교 배가를 의치며 거창하게 출범했던 우리 교회, 교구와 각 본당의 화려한 계획들은 모두 다 차질없이 잘 추진돼 왔는지 한편 자못 궁금해진다. 세사스런 지정일까? 하지 만, 지레 돌봐야 할 일이나 함께 잠시 살펴보고 싶다. 금년 가꾼 우리 신공(神工)들 그건 과연 풍작일까 풍작 일까? 아니면 평년작일까...

복음 연구와 선교사명 고취—결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해 특별히, 성서와 성가보급 연구에 주력하며 신심과 전교 배가를 꾀하려던 대책들은 족히 성사를 이뤘을까? 그간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참여도들 볼 뻔 어쩔 겨우 평년작이나 머물지 않을런지 적이 부끄 러진다. 하필없이 지낸 우리네 같기도 해 충구스럼 그지 없고—다시 흐느껴진 자신을 가다듬어 본다.

조직 사도직을 위한 사도수련—제자리 걷는 듯한 우리 단체, 오늘 우리들의 미미한 조직훈련, 이상대로 정작 현 사회에 대처, 그리스도 정신을 심고 또 퍼 나갈 수 있을까? 사도회도 청년 학생 단체들도... 그리고, 우리 들이 다같이 절감한 필요에서 신구 조직한 신학생 장학 회며 성가대 연합회, 교우위원회, 자원 봉사단 등에 대한 협조와 성원의 도는 어땠는지 한편 반성해 볼 일이다. 일은 무성한 듯 하면서도 열매 실속 없지 않을지 자못 아쉬움 커지기 때문이다.

유대와 결속을 통한 교회선양—우리의 자랑, 전주교구 의 힘은 일치와 단결에 있다. 서로 돕고 호흡을 같이 하 는 우리들의 삶, 이는 곧 정의구현 교구의 산 표본이요 사랑의 교회 그 「심볼」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 러나 요즘의 우리는? 이웃과 교구 공동체를 잊고 개개 안일과 무사히 깊숙이 젖어 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같 이 가슴과 이마를 다시 맞대어 보자. 방심으로 명들지 않게, 흉년들까 적이 적정스럽다.

그외에도 재정관리 및 본당과 공소 시설, 성전 건립을 위한 계획과 사업추진 등의 실적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착수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모두 무가 퇴상공론, 허울 좋은 명분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겠 기에.

하여, 늦게나마 다시 촉구하며 빌어 본다. 우리 모 두 함께 힘을 모으고 상부 상조하여 또다시 활기찬 우리 교구, 비록 교구장은 없어도 더욱 단합된 책임 행정과 빛나는 사업 수행을 이뤘 보자고. 지금은 분발, 도약을 앞둔 정비의 때, 참으로 더 무거워진 우리들의 시간이니 까...

모쪼록 더욱 풍성하고 싱싱한 결실, 이 가을에 가득 맺기 빌어마지 않는다. <교구 사목국장>

이미 순정이를 통하여 알려진바 있는 「글라라 관상 수녀회」의 세 수녀가, 지난 8월 14일 독일에서 황동에 도착하여, 한국에 그 뿌리를 내렸다. 한국내의 첫 진출지를 전주교구로 정하고 수녀원 개설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온 일꾼들은 원장 장민숙(그라시아) 수녀와 서문 안젤라, 장 안젤라 수녀로 모두 한국인들이다.

글라라 관상(觀想) 수녀회는 1200년초, 당시의 퇴폐적이고 물질위주에 빠져 있는 세태를 바로잡아 하느님 뜻에 맞는 교회를 건설하고자 수도회의 문을 열었다. 1212년 3월 18일, 성 프란치스코 제2회로 시작한 「가난한 자매회」는 엄격한 봉쇄(封鎖)의 규율 안에서 청빈과 겸손의 덕을 생활화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수녀회는 1243년경 성녀 글라라 생존시에 남부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수도원을 창설했다. 1838년에 남부 독일에만해도 9백여개나 되던 글라라 봉쇄 수도원은 문화혁명시에 모두 해산되어 하나만 남아 있다가, 1973년에 본원을 마리아 베스퍼빌드로 옮겨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수녀원의 하루 일과는 아침 5시의 기상으로 시작된다. 성체헌시(성체를 내어 모실) 가운데의 성체조배는 시간 별로 밤까지 계속된다. 미사·성무일도·독서·묵상·묵주의 기도는 물론 농사일 등의 하루 일과에는 마음과 몸을 흐트러뜨릴 수 없게 하는 순례의 길이 아닐 수 없다.

가난을 덕으로 삼는 수도회인지라, 그 운영은 자체 노동으로 얻어지는 것을 주로 삼는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 들은 하느님께서 은인들의 손을 통해서 항상 채워주신 다. 일용할 양식은 꼭 마련해 주신다는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심을 하느님께서서는 모른척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리라. 어쩌면 우리들의 적은 정성이 하느님의 손 역 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수도원의 지망자는 항상 환영한다. 그러나 금년만은 건국공사 때문에 어려우 내년부터나 지원자를 받는단다. 자격은 일반 수도원과 비슷하나 학력은 대졸이상(예외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단 면담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얼굴과 손만 내놓고는 온몸을 수도복으로 가리워 담담 한 모습이었지만, 부드러운 말씨 가운데 뜨겁게 토해지 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개척자다운 어머니와 딸들의 의지 를 읽을 수 있었다. 3천여명의 대지 안에 평신도들을 위 해서는 다섯칸의 피정을 위한 방도 마련하겠다는 「글라 라 관상 수도회」가 한국에서의 첫 걸음부터 알차도록 기 도해와 하겠다. 또 하느님의 손 노릇도 해야겠고.

수녀원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510-12, 전북 익산군 팔봉면 월성리 산 141-3」
전화는 임시로 「해바라기 농장」(이리 ☎5569)과 함께 쓴 다.

建設部登錄 測量設計業

大路技術

代表 金鍾淳(베드로)

全州市 中央洞 1가 36~13

(명동여관 뒤편) 전화 ☎3606

1. 土地形質變更 측량설계
2. 住宅建設團地 "
3. 都市計劃施設決定(학교등)
4. 國公有地占用許可 측량설계
5. 其他各種土木工事의 측량설계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 종 싱크
백 곰 표 싱크 주방

(東南綜合 생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640

(중앙성당 옆)

☎ 36900

金樂均(요셉)

허약한분, 병약한 분에게!

□보신·보양·고단위 영양식품

(성모병원)토롱센타

<토롱탕·토롱 진액>판매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 화 ☎4567

황수산나

ECCLESIA

□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금일 각 본당에서 실시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50분간에 걸쳐 한해동안 공부한 교리실력을 가늠하는 날이다. 출제 범위는 ①창세기 ②출애굽기 ③진례(미사), 참고는 성서를 지참하여 시험중에 찾아볼 수 있게 되어있다. 시험을 마친후, 답안지는 감독관이 봉인하여 교구청 사무국으로 즉시 우송하면된다.

□ 본당 확인지도 착수

오는 25일부터 각 본당 확인지도를 실시 한다. 교구 실무진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본 확인지도는 한 해 동안의 각 본당 사무과 운영의 제 현황과 실패를 점검하고 각종 문서, 장부 정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하나의 좋은 제도다.

금년엔 특별히 다음 13개 본당만 공식으로 실시하고 기타 본당들은 임의 사무방문시 확인, 점검키로 했다. 해당 본당들은 물론 그의 본당도 준비와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관심과 협력을 쏟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① 확인지도 일정-오룡동(8월 25일), 주현동(26일), 중앙(27일), 서학동(31일), 여산(9월 7일), 황동(8일), 용안(9일), 장계(10일), 무주(15일), 상광(16일), 고창(17일), 부안(18일), 신태인(22일)

② 시간 : 오전-현황 및 문서, 장부 확인 점검
오후-사도회 및 각 단체 대표자들과 좌담

□ 장수본당 회의실 낙성

신심어린 벽촌 교우들의 열의와 성금으로 장수 본당(주임신부 이종원)에서는 아담한 회의실 하나를 마련, 지난 15일 조출한 낙성식을 갖었다.

전평 16명의 작은 건물이지만, 앞으로 이집은 슬한 교육과 회합, 그리고 신앙의 산실로 사용케 될 것이며 본당 사무실로도 값지게 이용할 것이란다. 그간 협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노송본당 전속 현악 합주단 발족

바이올린·비올라·첼로의 선율이 노래와 함께 울려온다. 별로 접해보지 않은 탓인지 천국에라도 온 착각이다.

노송동 본당(주임신부 김정원)에서는 심층(深層)에 닿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전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본당 전속 현악 합주단을 8월초에 발족 시켰다.

은희천(아우구스띠노)교수-전주대학·서울 신화 예술학교 바이올린 교수-의 지도로 본당 교육관에서 주2회의 연습과 월1회 전례 연주를 하고 있다.

전자 오르간을 마련하고 성가대를 활성화 시키려는 교구내의 흐름에 발 맞추어, 음악인의 교회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동시에 획기적인 전례 분위기를 조성함에 찬사와 더불어 이 좋은 바람이 교구내에 운동 가득할 수 있을 빌어본다.

□ 전동 학생회 「비둘기」 책 발간

전동 본당 중·고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회의(懷疑)에서의 소생, 체험의 증언과 하늘에 닿는 기도 등을 한데 모아 125면에 달하는 「비둘기」를 펴냈다.

1년에 한번 발간하지만 벽찬 학업중에도 신앙에 더욱 충실해 보려는 새싹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본 학생회의 발전과 축복을 빌어 드린다.

(축) 영명 문정현(바르톨로메오)신부님-8월 24일
김재택 주교님, 이상호·김영일·강덕항신부님-8월 28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 (420) 김병호



전주 해성 중·고 동창회

아래와 같이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졸업생 전원은 빠짐없이 참여 하도록 두루 연락 바랍니다

1. 일 시 : 81년 8월 23일 <일> 오전 10시
2. 장 소 : 해성 중·고 체육관
3. 회 비 : 3,000원
4. 연락처 : ③2958 ④4551

동창회장 김 옥 기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피도(덕배)·이 마리아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 (비오)

□ 보 건 향 상

※ 교우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범 모 약 국

전 화 ③ 5 3 1 9
김 영 춘(아우스딩)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프란치스코 3회 제 4차 전북지부 총회 및 피정 : 8월 22~23일(1박 2일) 오후 2시부터 장소-노송동 천주교회
- 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 8월 24일(월) 오후 6시 30분 중앙 천주교회, 주제-궤은이와 신앙 그리고 교리교사
- 목요 성서 연구반 개강 : 9월 3일부터 매주 <목> 오후 5시 30분, 장소-덕진 학생회관 대상-대학생 및 청년, 과목-창세기 20장부터, 강사-김보나 수녀
-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 오늘 오전 11시 ※ 3번 참고

(중양)

전화 3651 3874번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유인호
 보좌 신부 박인우
 사도 회장 김병구

-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 8월 24일(월) 건강하시여 많은 일 하실수 있도록 영육간에 기도해 주세요
- 축하식 : 8월 23일(일) 공식미사후, 에콜봉투는 당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1. 중·고 교리 경시대회 : 8월 23일 교리 경시대회 학생 참석율도 종합성적에 가산되며 중·고생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지도확인 : 본당 지도확인 8월 27일(목) 오전 10시 사도회 상임임원은 꼭 참석 바랍니다
 3. 어린이 영세 : 8월 28일(금) 10시 30분 어머니미사후
 4. 금요 성서 연구 : 매주 금요일 오전반 10시 30분-어머니미사후 오후반 7시 30분-저녁미사후 문제 3과가 나왔습니다. 문제 2과 답안지를 꼭 가져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 951,545원

(노송동)

전화 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은혜의 밤 : 28일(금) 저녁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재속 형제회 피정 : 22일(토) 14시~23일(일) 15시까지 장소-노송성당, 대상-전북지부 산하 재속 형제회원
 3.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 수납이 부진하여 본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4. 베소라 성서 강의 : 매주(화) 저녁 8시~10시까지
 5. 금주의 성경 읽기 : 신약의 두가복음 전체 당신은 매주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6. 성령 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8시부터
- 지난주 봉헌금 : 298,635원
 성모승천 축일헌금 : 292,010원

(덕진)

전화 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부녀회 월례회 : 부녀회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2. 사도회 상임위원회 : 다음주 각 분과위원장님들 꼭 참석하세요 30일
 3. 오늘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 전원참석하기 바람
 4. 보미사단 강화훈련 : 카올로 연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진복회 월례회의 날 : 매월 마지막주일, 진복회회원님들 성원 있는 참여를
 6. 축하합니다 첫 영성제 37명
 7. 유아세례 : 9월 4일 오전 10시 유아 세례자는 대부모님들 꼭 모시고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13,840원 특별헌금 : 227,885원

(복자)

전화 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2.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후(최메레사제),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보좌신부님)
 3. 다음주일 전례 : 해설-은희영, 독서-①이충원 ②이정화
- 지난주 봉헌금 : 341,025원
 성모승천 축일헌금 : 189,300원

(서학동)

전화 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울드레아 모임 : 25일(화) 저녁미사후 8시 30분 푸르실리스파를 모임 갖읍시다
 2. 반장님들과의 대화 : 23일 공식미사후 장소-관촌 사신대(사도회 임원님들과 대화를 나눔)
 3. 본당 확인 지도 감사 : 31일(월) 사도회 임원님들 준비하시기 바람
 4. 월별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5. 다음주 전례 담당 : 독서-①김나섭 ②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 175,485원 교무금 : 173,600원
 성모승천 대축일 : 153,885원

(숲정리)

전화 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 오전 11시-유우치원 빠짐없이 나와주세요
 2. 요안나 월례회 : 공식미사후, 박대규(발라바) 형제대
 3. 연말결산 대비 거년도 미수된 교무금을 10월 말까지 완납 바랍니다
 4. 전화번호안내 : 수녀원 9567번, 신용조합 7522번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철수, 독서-①김경주 ②선종현, 기도-박해근
- 지난주 봉헌금 : 290,450원

(전동)

전화 3222번

주임 신부 박영준
 보좌 신부 김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울드레아 : 다음주 29일 오후 8시, 사제관
 2.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30일) 오후 1시 30분
 3.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 오늘 오전 11시, 학생들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다음주(30일) 전례담당 : 아침미사 : 해설-박종우, 독서-①이주영 ②최병래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희 ②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453,260원
 성모승천금 : 390,250원

(파티마)

전화 0915번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 축하식 없음
 2.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 23일 오전 11시 유치원
 3. 제대꽃(성모승천)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4. 중·고생 교리 지도 : 최신학생계 감사드립니다
 5. 대학생 모임 : 다음주 저녁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124,495원 교무금 : 42,000원
 성모승천 봉헌금 : 120,940원